

건강한 가정교회를 넘어 흩어지는 교회로



최상태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과 풀러신학교(D. Min.)를 졸업하고, 일산 화평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시무 중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겸임교수와 경기지역 CAL-NET 대표로 섬기고 있다.

이번 <디사이플> 현장이야기에서는 화평교회를 담임하는 최상태 목사를 취재했다. 화평교회의 이야기는 이미 2009년 <디사이플> 12월호 현장이야기에 나간 바 있다. 그 기사를 읽으면, 화평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그룹 사역에서 소그룹 리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취재한 화평교회를 다시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중 하나는 최 목사가 최근에 집필한 책에 있다. 그는 『제자훈련 이후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맞는 제자훈련 모델을 제시한다. 평신도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생산적인 사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역을 위임하고 파송하는 재생산의 사역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설명한다. 이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 화평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평교회는 2009년 이전부터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교회였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최상태 목사는 1988년에 교회를 개척해 27년 동안 고양시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계속해왔다. 2006년에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나서도 변함없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다.

화평교회는 2001년부터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를 대상으로 개최해온 '가정교회 세미나'로도 잘 알려진 교회이다. 매년 100명이 정원인 이 세미나에 지원하려고 많은 사람이 줄을 선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곳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짧은 점심시간에도 맛집 앞에 줄이 생기는 이유는 극히 단순하다. 맛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시대에 부합한 제자훈련 사역을 모색하는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울 만한 비결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 목회의 보람을 아는 사람

최상태 목사는 세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을 시도한 곳은 유난히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이었다. 주일에 새가족이 몇 명 찾아와도 몇 달 뒤에는 2/3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멤버들과 제자훈련을 시작했지만, 지역 특성상 얼마 되지 않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상황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됐다.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목회 현장에 오래 있다 보면, 누구나 진이 빠질 수 있다.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역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 것이다. 그러나 최 목사는 기죽지 않고 이 지역에 제자훈련 목회를 접목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다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는 열정이 충만할지라도, 교인이 없으면 누구를 훈련할 수 있겠단 말인가!' 최 목사는 제자반 운영을 잠시 멈추고, 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몇 년을 전도에 전념하면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한 토양을 다진 것이다.

그는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불타는 열정을 가졌다 해도,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가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 목사는 7년이 지나도, 아니 개척하고 나서 27년이 지난 현재도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비결은 "제자훈련이 사람이 고안해낸 이념이나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의 본질임을 아는 것"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원론적인 대답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최 목사의 눈빛은 진지했다. 확신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놓고 고민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꼭 차 있었다. 오랫동안 고뇌하고 씨름한 끝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제자훈련이었다.

또한, 최 목사는 제자반에서 훈련생들과 함께 받은 은혜, 친밀한 교제,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했다. 그는 제자훈련 목회의 보람을 아는 사람이다. “언제나 훈련생들과 함께하는 제자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적 근거와 은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훈련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친밀한 관계, 교회의 생명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1,500명에서 2,000명가량이 주일마다 화평 교회에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흥미롭게도 최 목사는 개척 당시부터 주일예배 출석인원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목양 사역의 성격 때문이다. 그는 교회의 생명줄이 관계의 친밀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가족과 같이 친밀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출석 인원수에 관심을 두기보다 주일에 화평 교회 식구들의 표정이 어떤지 살피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고, 교회학교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한다.

“친밀한 관계가 교회의 생명줄”이라는 최 목사의 말은 교회를 설명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실제로 교우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는 목양실을 식당 바로 옆에 자리하게 했다. 그래서 주일에 성도들은 식당을 드나들면서 담임목사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된다. 아이들이 후식을 찾아 담임목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광경도 흔히 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목양실을 두고,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한 것이다.

최상태 목사의 이런 철학은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화평교회의 가정교회가 분가를 결정할 때도

최 목사는 6명의 부목사와 동역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반을 직접 맡아 훈련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최 목사는 사역반에 해당하는 ‘지도자반’보다 제자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자반에서 훈련생들과 삶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보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체성을 더 중요시한다. 소그룹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구성원들의 관계성, 친밀감을 중시하는 점에서 화평교회의 가정교회는 한국 교회의 어느 소그룹과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방침이 가정교회들을 파송해 교회를 세우는 ‘흩어지는 교회’로 이어진다.

또한, 최 목사는 6명의 부목사와 동역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반을 직접 맡아 훈련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보통 어느 정도 평신도지도자가 세워지고 동역할 목회자가 함께하면, 제자반은 부목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는 사역반을 맡아 앞으로 교회를 이끌 평신도지도자 후보생들과 교회론을 나누며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사역을 위임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나 최 목사는 사역반에 해당하는 ‘지도자반’보다 제자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자반에서 훈련생들과 삶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평신도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한 교회 개신

최 목사는 매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가장들(평신도지도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침부터 여러 번 예배



평신도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제자훈련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회가 장들과 이런 친밀하고 투명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최 목사의 부지런한 연구열정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이 있다.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일 낮 예배, 남녀

전도대 등의 사역들을 제자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한 것이다. 주일 낮 예배 대신 가장 모임과 제자반을 운영하고, 남녀 전도대를 구성하는 대신 가정교회(소그룹)마다 전도를 강화하도록 인도했다.

또한, 최 목사는 주일에는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교회가 지향하는 친밀한 관계성을 심화하려는 변화였다. 다양한 교회 사역의 의사결정을 위해 특정 사람들과의 회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가정교회 가정들을 만나고, 제자훈련생들과 교제하며, 화평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과 인사하는 일에 시간을 더 할애하려고 한 것이다.

친밀해지기 위한 훈련

우리는 어느 때보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요즘은 자기 몸의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단절되고 외로운 삶을 사는 시대이기도 하다. 일주일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보내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을 모른 채 자란다. 이는 오늘날 소통하는 수단이 발전했지만, 반대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대인관계 능력이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를 인도하고 식사 후에 모여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히려 쉽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라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한다.

그는 가장들과의 만남이 이토록 기다려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같은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진 평신도지도자들과의 만남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참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 깊이 알고 상호소통이 이뤄지는 관계라서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하다.

최 목사뿐만 아니라 가장들도 역시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어떤 가장은 다음과 같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랑했다. “목사님을 만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변함없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목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사역에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최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일이 아니다. “저도 요즘 전화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일이 마음편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뜨면 전화받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성을 지향하는 최 목사도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쉽게 소통하려는 풍조에 끌려가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이런 편안함에 머물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한다. “목회 중에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목회입니다. 나 자신의 지성, 감성, 영성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는 아무리 편하고 쉬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개혁시키겠다고 말한다.

최 목사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 최근 들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떠도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 영적 난민이자, 영적 소비자이며, 잃어버린 양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사모한 나머지 신앙의 균형을 못 잡고 떠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품고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최 목사는 “교회가 본질을 붙들 때 그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것”이라고 조언한다. 즉 마음과 마음을 열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하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피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 충실한 성경공부

모임을 찾아다닌다. 얼핏 보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당연시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교회를 뒤로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굳이 함께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누군가가 공동체를 찾는 이유가 은혜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다양한 사람들과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는 장이기도 하다.

예배 중에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고인 물이 된다.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푸짐한 인심의 식당에 함께 둘러앉아 풍성한 식사를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 친밀감은 나와 생각과 성격이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공동체로 들어가기 회피하는 성도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길은 충실한 양육 과정과 소그룹에 있다. 화평교회는 충실한 양육 과정을 마련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신자는 먼저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거치고, 이후 가정 교회로 연결돼 가정들의 영적 돌봄을 받게 된다. 이때 최 목



화평교회는 충실한 양육 과정을 마련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신자는 먼저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거치고, 이후 가정교회로 연결돼 가정들의 영적 돌봄을 받게 된다.

사가 유의하는 점이 있다. 가정교회에서 전도받아 교회로 나온 새가족은 처음에 참석한 가정교회에 소속시킨다. 그러지 않은 새가족들은 심방을 통해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가정교회를 찾아 연결한다.

화평교회 새가족 모임을 보면 화평교회 평신도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새가족반 강의를 맡은 강사도 평신도지도자다. 이는 화평교회에 부교역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장을 마련한 결과, 평신도지도자가 강사로 새신자들을 섬기게 된 것이다.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가정교회로 연결된 새가족들은 13주간 이뤄지는 양육 과정으로 인도된다. 1년에 2회 열리는 이 양육 과정에서는 첫 5주간은 교리를, 나머지 8주간은 기독교인의 구별된 삶을 다루며 균형 잡힌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양육 과정의 후반부에서 특별히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화평교회를 등록한 새가족들이 화평교회를 출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보고 놀란다는 점이다. 새가족반에서 환영해주는 봉사자들의 환한 미소와 가정교회 가정들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영접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의 친밀감을 맛보게 한다.

2020 비전, 흠어지는 교회

화평교회는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 공간이 비좁아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지만, 이때부터 한 사람 철학을 지키기 위한 최 목사의 고뇌는 더 깊어졌다. 그의 고민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에는 누구나 한계가 있다. 음식섭취량, 운동량, 암기력, 대인관계 등 사람이 받아들이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성도들의 영적 돌봄을 책임지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만나고 교제하지만, 한 사람이 신경을 써서 집중할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다.

최 목사는 교회가 커지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봤고, 그래서 그는 교회의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오래된 교인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재생산하기로 했다. 이것이 후일 '2020 비전'이라는 구호로 화평교회 목표가 됐다.

'2020 비전'은 가정교회에서 나아가 큰 규모의 공동체, 즉 광역 단위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중심에 둔 비전이다. 제자 훈련 정신을 체득하고 한 사람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하려 하는 교역자가 화평교회 가정교회 소속 멤버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다.

'2020 비전'을 선언했을 때, 모든 교인이 찬성한 것은 아니



최 목사는 교회가 커지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봤고, 그래서 그는 교회의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오래된 교인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재생산하기로 했다. 이것이 후일 '2020 비전'이라는 구호로 화평교회 목표가 됐다.



었다. 교인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오랫동안 화평교회를 다니면서 최 목사의 인품과 의도를 알고 동조하는 이들과 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비전 인지 방관하는 이들, 그리고 아직 동조할 마음이 없는 이들로 나뉘었다.

흠어짐으로 교인의 잠재력을 키워가다

최 목사가 교회를 흠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교회 역사를 보면서 생긴 고민 때문이었다. 교회 역사를 보면 50년, 100년 이상 된 교회 가운데 지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커지면서 쇠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원인을 찾으려서 그는 사람 간의 관계가 사라지고 신앙이 형식화되는 증상을 발견했다.

“우리 교회도 흠어지지 않으면,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평교회는 식구들을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자료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흠어지는 교회였지요.”

교회가 흠어짐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많다. 우선 화평교회에서 잠잠히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맡으면서 본인의 재능과 은사를 맘껏 사용할 기회를 얻는다. 그들이 만약 화평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들은 꽃을 못 피웠을 것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새로이 가게 된 지역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냉랭하고 침울했던 지역이 화평교회에서 관계훈련을 받은 교인들로 인해 사랑이 충만한 지역으로 변화하는 일을 종종 목격했다고 한다. 지역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간증을 듣게 된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사실 최 목사는 2015년을 맞이하면 그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맡아 온 제자반을 부목사에게 위임하고,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했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계획을 접고 제자반을 다시 맡기로 했다. 무엇이 최 목사의 계획을 바꾼 것인가? 그 이유는 한 여 집사가 건 눈물의 전화 때문이었다.

그 집사는 오랫동안 자신의 남편이 제자훈련을 받기를 기도해온 화평교회 성도다. 자신이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자신의 남편도 제자훈련을 받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 몇 년의 기도 끝에 남편이 드디어 “올해는 제자훈련을 신청해야 하겠다!”고 선언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담당하던 부목사님께 지원 여부를 물어본 참에, 최 목사가 1년만 제자반을 다른 부목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랫동안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해 온 여 집사는 최 목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발 자신의 남편을 받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최 목사는 이 한 사람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제자훈련을 올해 다시 맡기로 했다.

최상태 목사가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가 1994년 옥한흠 목사로부터 받았던 편지 때문이다. 옥 목사는 <목회와 신학>에 실린 최 목사의 글을 보고 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대형 교회 담임목사가 고양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를 위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준 일이 최 목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때 한 사람 철학의 감격과 위력을 피부로 경험했던 그이기에 교회의 한 성도를 위해 자신의 계획을 접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본질에 집중하는 힘

50세에 접어들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게 되지만,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를 관통하지 못하는 한계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최 목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 사람은 과거에 성공한 논리나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 사고와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면 고인 물이 되어 썩어버립니다.” 최 목사는 오늘날 시대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접목하려고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있다. 썩지 않는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의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 부산에서 한 일본인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남편은 3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를 정년 은퇴한 후, 한국



인과 결혼한 딸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온 참이었다. 부산에서 2개월 정도 생활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떠났다.

“이곳에는 사람의 정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였을 때 일본에서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정이었어요. 1970년대 이후로 일본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대가로 정을 잃은 거 같아요. 지금 일본은 마음을 열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줄 모르는 냉랭한 나라가 됐지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는 한국을 떠났다. 몇 년 뒤에 그는 일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했다. 아무리 익숙해도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곳보다는 정을 느낄 수 있는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다.

본질은 늘 똑같다. 그러나 본질을 담을 그릇은 시대 정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입는 옷의 취향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제자훈련의 정신도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속식을 함께했다. 가족처럼 지내면서 신앙인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위임 받은 교회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 수 있는 사역자가 많아지길 소원해본다.  (시미즈 카네타카 전도사)